

요오드 함유 조영제란?

요오드 함유 조영제를 때로는 ‘엑스레이 염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밀 검사를 할 때 환자의 장기를 좀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투여하는 무색의 요오드 함유 액체입니다. 조영제는 신체를 오염시키지 않으며 보통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설됩니다.

요오드 함유 조영제가 어떻게 투여되나요?

조영제를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먹는 약을 통해 투여하거나, 동맥이나 정맥에 주사를 놓거나, 관절 혹은 기타 신체 부위에 직접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요오드 함유 조영제 주사를 맞을 때 느낌이 있나요?

동맥이나 정맥에 요오드 함유 주사를 맞을 때, 환자들은 대부분 어떤 느낌도 감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주사를 맞는 동안과 그 후에 따뜻한 느낌이 몸속으로 퍼지는 것을 20초 정도 감지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종종 사타구니 부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은 흔한 경우이며 금방 사라집니다. 이따금, 환자들이 주사를 맞는 동안과 그 후에 (구토와 같은) 메스꺼움을 잠깐동안 느낍니다. (아래의 리스크에 대한 질문 및 내용 참조).

요오드 함유 조영제 주사를 맞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CT 검사를 위해 팔에 정맥주사를 맞는 경우 10초 내지 30초가 걸립니다. 혈관조영술을 받는 경우에는, 검사하는 동안 사타구니에 삽입되는 얇은 플라스틱 튜브를 통해 (단 한 개의 주사바늘로) 아마도 여러 번의 주사를 맞을 것입니다. 관절조영술 및 척추조영술과 같은 다른 검사의 경우, 조영제를 방사선과 의사가 손으로 주사합니다.

요오드 함유 조영제가 왜 필요한가요?

조영제는 환자의 영상자료 (정밀 검사를 통해 촬영하는 사진들)를 해석하는 방사선과 의사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종 이 추가 정보 덕분에 더욱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요오드 함유 조영제 주사 및 약으로 먹는 조영제에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조영제에 따르는 리스크 및 합병증에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조영제의 혈관 밖 누출. 경미한 누출의 경우 얼음찜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추가 처치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누출이 심각한 경우나 통증 증가, 부기 증가 혹은 붉은색 멍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GP의 진료를 받거나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신장 관련 부작용: 환자가 심각한 신장병이나 당뇨병 심지어 두 가지 질병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 요오드 함유 조영제가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 알레르기 반응. 주사 후 처음 5분 이내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최대 1주일 후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반응은 보통 처음 10분 이내에 발생합니다.
 - a) 경미한 반응은 최대 환자 100명당 1명이 발생하며, 보통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반응에는 안면 홍조, 가벼운 메스꺼움 및/또는 구토와 가벼운 가려움 등이 있습니다.
 - b) 중간 정도의 반응은 1000명당 1명 미만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종종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에는 장시간의 구토, 온 몸의 발진, 또는 숨쉬고 삼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얼굴, 입 또는 목구멍의 부기 등이 있습니다.
 - c) 사망을 포함하는 심각한 반응은 100,000명당 1명보다 적게 발생합니다. 심각한 반응의 경우 응급 의료 처치와 종종 관찰 기간 동안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영상의학 검사실은 조영제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히 훈련된 요원과 적절한 의약품 및 장비를 구비할 것입니다.
- 환자의 신장 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조영제 투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신장 기능의 악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사 전에 ‘방울 주입’을 통한 정맥주사로 (정맥에 직접) 투명한 수액 주사를 몇 시간 동안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 수액주사가 검사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과 모유수유

일반적으로, 조영제를 포함하여 임신 여성에 대한 모든 약물 투여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영제가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지만, 동시에 조영제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만큼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산모에게 투여되는 조영제 투여량의 1/1000 미만이 모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신부가 조영제를 투여받더라도, 모유가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영제 주사를 맞았던 부서나 검사실 또는 병원을 나온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몸 상태가 안좋아지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가까운 응급실 또는 GP에게 가십시오. 조영제를 투여한지 1시간 이상이 지난 후 심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본 안내자료의 출처: ‘RANZCR 조영제 투여 지침’.